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시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KHUNews)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천리안(ID: KHUNews)

이입하는 스승을 보내며 중령 최진학 교수부장님께

어느 집안이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으며 그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 모두 끊임없이 노력한다. 역사적으로 어느 집단이나 조직의 발전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 또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경희대 학군단도 경희대 개교 이래 최초로 전국 92개 대학중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발된 것도 학군단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경희인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직접 믿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지론으로 우리 후보생들에게 스승으로서 한편으로는 군의 사상

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항상 느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교수부장님께 제정기 때 문이라 생각한다.

젊은 우리 학생들의 사고를 뛰어넘는, 신사고로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군내에서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연구하고, 정보 처리학원에서 만학의 열정을 태우는 교수부장님의 정열에 진심에서 박수를 드리고, 때론 담당과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질문에 얼굴이 붉어진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또한 전국 유일의 미학군단 방문제도를 정착시켜 한·미 우호 증진은 물론 경희대학교의 세계화에 기여한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더욱이 교수부장님은 25개 성상의 긴 군생활을 우리 학교에서 마감하기에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고, 교수부장님 또한 자기 자신의 무한한 노력으로 결코 쉽지 않은 전국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된 우리 경

희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경희인으로서 군 생활을 마감하기에 감회가 깊을 것이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나의 스승이자, 군의 선배, 경희 동문인 교수부장님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밝은 미래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 중 회
(문리대 무역 4)

이름뿐인 여학생휴게실 정책적 지원 필요

중앙도서관의 여학생 휴게실은 열람실이 모자라는 학교 사정으로 인해 여학생 열람실로 대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열람실 사용도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서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인부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전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 지에 대한 공고도 확실치 않고 있지 않다.

각 단대의 여학생 휴게실을 보면 책장만 몇개 놓여 있을 뿐 청소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타학교의 시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수준이다. 문리대 여학생 휴게실에는 여학생회가 반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 휴식을 하는 여학생들은 타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창문에 달라붙어 담배를 피우는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쓰레기통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큰 비닐봉투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 휴실에 필요한 침구는 물론이고 잡지나 서적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여학생은 휴게실을 외면하고 있다.

여학생 휴게실이 명칭뿐인 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침구와 소파등의 물품 배치는 물론이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학교는 종전의 안일한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 화 평
(문리대 생물 1)

나무에 걸린 플래카드 규제 조치 필요해

상쾌한 아침, 교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플래카드들.

선거철이었기 때문인지 여느 때보다 화려한 PC들이 학교 구석구석에 걸려 있는 요즘이다.

학교의 행사들에 대한 정보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가해지게 마련이어서 PC를 정해진 기둥에 걸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C를 나무에 걸게 되면, 바람이 불때 생기는 압력이 나무에 가해지게 마련이어서 PC를 정해진 기둥에 걸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을 것이다. 환경보호를 그리 대단한 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주위의 나무들을 PC로부터 보호하기!!

강 선 미
(국문 1)

유세대자보 아직 남아 깨끗한 뒷처리 필요

요즘 한창 선거열기로 학교 전체가 들쭉거렸다. 각 단대별로 선거유세도 만만치 않았다. 모처럼 집체인 대학교정이 다시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특히 자기들을 알리는 대자보를 사람들의 대자보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았던 것 같다. 여기저기 보이는 곳만 있으면 서로를 대자보를 부치느라 분주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투표를 하고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대자보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거를 할 때는 서로를 알리려고 열심히 대자보를 붙이더니 선거가 끝나자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 대자보 위에 다른 대자보가 계속 붙어 있어서 지저분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대자보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깨끗이 남겨두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학교내에서 여러 선거들을 보아왔지만 전부 대자보들을 제때 떼어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회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야 하지 않을까.

구 보 경
(문리대 생물 1)

고 집

지난주 신문 1면의 총학생회장 당선기사에서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이름을 '김정필'에서 '김영필'로 고집한다.

배울고개를 넘어 아름답기로

‘잃어버린 이름을 찾습니다’ 입상작 발표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한 ‘잃어버린 이름 공모전’에서 체대에서 산업대까지의 언덕길과 사회대에서 자연대까지 가는 길 부문에서 각각 3편씩의 우수상이 선정되었다.

각 부문 40여편씩이 제출되어 경합을 벌인 이번 공모전에서 2부문 모두 당선작은 채택되지 못했으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름과 의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체대에서 산업대까지의 언덕길(세정 합작고개) 부문◆
△배울고개

고개를 넘으면 도서관이 있기에 학문을 배우러 간다는 의미. 김현주(러어과2)
△사자등마루
우리학교의 마스코트인 사자의 등과 흡사한 모습에서 착안. 한진희(토목3)
△목련고개
목련은 우리학교의 교화이자 캠퍼스의 상징. 김수환(환경4)
◆사회대에서 자연대까지의 길 부문◆
△아름길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의 준말. 이기인(유전1)

△미래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미래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 송보영(중문4)
△학사로
‘배움의 사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 경희의 상징인 사자와 대학의 본분인 학문탐구의 뜻을 조합한 합성어. 이택근(영문2)
한편 각 우수작 당선자들에게는 상패와 1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 일정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해요”

—초대 수원캠퍼스 언어교육연구원장 이숙자교수

잠깐 인터뷰

오는 24일 개원되는 언어교육연구원은 내년 1월 6일부터 6주동안 '96국제방학 어학강좌를 실시한다. 수원캠퍼스에서도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일 초대 언어교육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숙자(일문)교수를 만나보았다.

—초대 언어교육연구원장이 된 소감을.

—먼저 어제가 무겁다. 연구원이 개설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꾸준한 노력하겠다.

—어떤 취지에서 개원하게 되었는가.

—국제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키워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좁은 감은 있으나 이번 개원을 통해 수원캠퍼스 발전도 함께 도모할 것이다.

—타 대학의 외국어교육원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점은.

—경기도 지역에선 최초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97년도 3월경부터 활성화 할 계획이다. 외국어를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침으로써 한국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 봄학기부터 정규적으로

로 어학강좌와 한국어강좌 및 각종 위탁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또한 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개방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방학중에도 캠퍼스 내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캠퍼스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방학 중 학생들이 유치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

—현재 교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학 중 스쿨버스 증편배차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전철이 들어서게 되면 어느정도 교통문제는 완화되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경전철 계획을 보면 신갈과 우리학교 구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어교육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

(최진원 기자)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대학, 경희대학교가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희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96.12.2~12.6)

△박성호(재단감사, 2차분) 2백만원
△여성규(경희고등학교교장, 3차분) 1백만원
△이진수(외국어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백50만원
△이현상(기획관리실) 50만원
△백문규(학적과) 1백만원
△김광식(총무과, 2차분) 40만원

△김중섭(언어교육연구원 교수) 2백만원
*경희발전기금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안내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위하여
—'96년도 일시불 납부자: 영수증 발급, 발송 하였습니다.
—급여공제(교직원, 병설기관 포함)대상자: '96년도 발전기금 급여공제 전액을 경리과에서 지동으로 공제해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경리과로 제출하지 않아도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

朔風

차라리 벼룩의 간을...

은가죽의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 땅을 찾은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행 취업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족들이 고리사채를 얻고 심지어 집을 팔면서까지 한국행 티켓을 잡기 위해 기를 쓰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한마디로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서 한국은 단기간의 고생으로 한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금을 만져볼 수 있는 꿈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안달하게 만드는가? 한국 방문후 불법체류중에 건설현장 잡역부로 일하며 버는 월수입은 약 1백20만원 정도라고 한다. 중국에서 3천평 농사를 지어 얻는 한달 수입 2만원에 비하면 60배나 되는 금액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한

달 수입으로 중국에서는 5년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몇년간 고생하면 중국에서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을 만져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친 이 땅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꿈의 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낯설고 물결은 한국 땅에서 코리안 드림이 그렇게 만만하게 실현되리만 하겠는가? 국적은 중국이요, 핏줄은 한민족인 '반쪽 한국인'으로 갖은 벌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어렵게 번 돈은 꿈이 현실로 바뀌고 희망에 찬 내일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력충출업체나 친인척초청 브로커에 상당부분 지불되어지고 그나마 사기꾼에게 걸리면 한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패가망신하기 일수라 한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최근 조선족 사회에서 판매부수 3만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바람꽃'이라는 소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겪는 세 젊은이의 삶을 그린 이 소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산재보상도 못받고 불구가 되는 남편과 치료비라도 마련해보려고 회사 사장에게 몸까지 바치지만 보상은 커녕 자살하는 아내, 이 사실을 항의하다 동료들 앞에서 못매를 맞는 친구 등을 소재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희망의 땅에서 그것도 같은 동족에게 당하는 그야말로 비참하다 못해 처참한 한국 내 조선족들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 조선족 사회에서 반한 감정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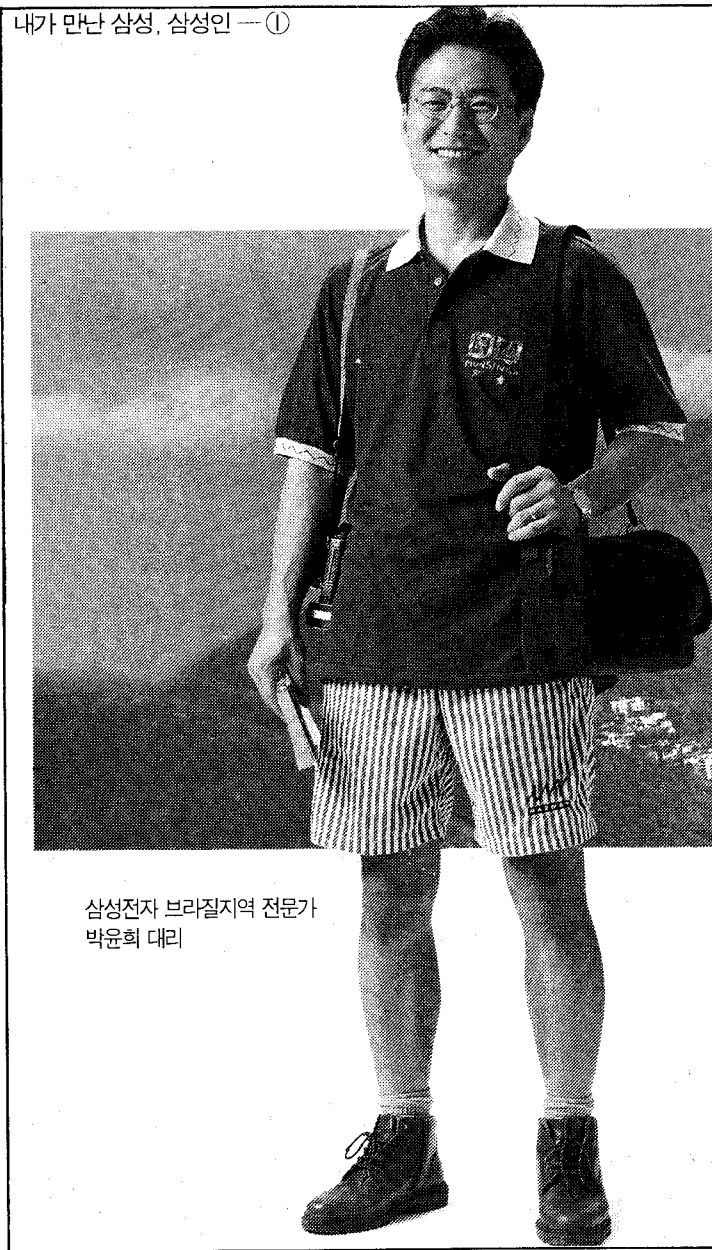
전체 40만가구중 20%인 8만가구

가 한국인들로 직, 간접적인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소설이 "과거에는 일본놈들, 지금은 한국인을 때려잡자"는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날개돋힌듯 판매되고 있을 정도니 이들의 코리안 드림이 얼마나 처절하게 부서지고 상처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도 다름아닌 그들의 조국 땅에서 그들의 동족에게서.

머지 않아 그들의 머리속에 "코리안 드림=패가망신"이란 등식이 자연스레 성립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그들이 그토록 안달하는 희망의 땅을 밟아 보고자 꿈에 부풀어 있을 순진한 조선족들에게 희망의 땅 끝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희망의 땅(?)은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간절히 전하고 싶다.

(知存)

내가 만난 삼성, 삼성인 —①



삼성전자 브라질지역 전문가 박윤희 대리



브라질에서의 1년을 생활할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리오 데 자네이로항, 삼바축제의 열기, 끝없이 펼쳐진 아마존의 밀림 - 그리고 또하나 잊혀지지 않는 서른살배기 얼굴이 있다. 삼성의 지역전문가로 파견되어 있던 삼성전자 박윤희씨 - 복잡한 업무 때문에 왔으리라고 짐작했던 내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브라질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이 1년간 그가 해야할 일의 전부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21세기 최고의 남미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회사가 된다는 것은 몸바버처럼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일거라고 믿고 있던 내게, 그의 대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람을 전문가로 키울 줄 아는 회사, 그리고 패기와 정열로 그 꿈을 실현시켜가는 사람들 - 이것이 브라질에서 만난 삼성, 삼성인의 모습이었다.

한국 외국어대학 포스트칼리지 3학년 경혜영

SAMSUNG

삼성

삼성은 업무를 떠나 자유롭게 언어와 문화, 관습 등 현지 경험을 쌓아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지역전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